

LG화학 사고현장 달려간 구광모 “무거운 책임통감… 대책 강구”

대산공장 방문해 수습상황 살펴 피해자·가족들에 “송구” 사과 “안전환경 기본 중의 기본” 강조 원점서부터 사고방지 대책 주문

구광모 (주)LG 대표가 LG화학 사고 현장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LG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일 헬기편으로 충남 서산시 LG화학 대산공장을 방문해 전날 발생한 사고 현장과 수습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도와 국내 사업장에서 이어진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들에 깊은 애도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와 위로를 표했다. 많은 분들에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 잇따 안전환경 사고에

신학철 부회장 등 모든 경영진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며, 안전환경 사고 방지를 위한 원점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경영 실적 악화가 아닌, 안전환경과 품질 사고 등 위기 관리에 실패했을 때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안전환경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며 “CEO들이 실질적인 책임자가 돼 안전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T “1년간 독거노인 23명 구조” ‘AI 돌봄’ 치매 대안 부상

행복 정서 높아지고 고독감 줄어 “기억력 향상…복지용품 고려할 만”

1년에 17조원 나가는 치매 예방 비용, 인공지능(AI)이 줄일 수 있을까.

AI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출시 1주년을 맞은 SK텔레콤의 AI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다.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돌봄에서 제공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두뇌톡톡’은 SK텔레콤과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 연구팀이 협력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AI 스피커 ‘누구’와 대화하며 퀴즈를 푸는 식으로 장기 기억력과 주의력·집중력을 향상시킨다.

20일 SK텔레콤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면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금액이 커진다”며 “사전 예방을 통해 치매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치매를 늦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AI를 통한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전달되도록 복지 용품으로 고려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시작해 서비스제공 1주년을 맞았다. 현재 서울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 등 협의회 소속 7곳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자체의 약 3100가구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총 6500가구 이상의 어르신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ICT연구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거 어르신 67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이용 패턴과 효과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75세였고, 여성과 남성간 비율은 7대 3이었다.

조사 결과,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73.6%를 포함해 어르신들의 95% 이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디지털 서비스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정서적인 케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금해하던 세상 밖 소식도 ‘소식톡톡’으로 들을 수 있고, 코로나19 예방 정보, 감염자 경로, 마스크



성동구 70대 어르신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구입처도 쉽게 알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AI 돌봄 서비스 이용 전후를 비교해 행복감과 긍정 정서가 높아지고 고독감과 부정 정서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AI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통해 긴급 SOS를 호출한 사례는 328건이었고, 이 중 23건이 실제 긴급구조로 이어졌다.

AI 스피커는 독거 어르신들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 SOS” 등을 외칠 경우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캡스(야간)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후 ICT케어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상황 확인 및 초도 대응을 하고, 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면 즉시 119에 연계하는 프로세스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사회적 부담으로 떠 오른 치매 예방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 연구팀은 ‘두뇌톡톡’을 8주간 매주 5일씩 꾸준히 이용한 어르신들의 경우 장기 기억력과 주의력·집중력이 향상되고 언어 유창성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년 정도의 치매 발현 지연 효과가 예상된다.

이달부터는 이준영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개발한 ‘기억검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기억검사는 현재 주요 대학병원과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인지 검사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두뇌톡톡’을 꾸준히 실시한 후 기억 검사를 하는 선순환 방식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팀은 권고했다.

/김나인 기자 silkn@

현대차, ‘수소전기 택배차’ 수도권 달린다

환경부와 수소 화물차 보급 MOU

현대자동차가 환경부 등과 함께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옥천허브터미널에서 현대차 한성권 사장, 환경부 홍정기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국토교통부 손영수 2차관, CJ대한통운 정태영 부사장, 현대글로벌비스 전금배 전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반영된 경유 화물차의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앞으로 수소전기 화물차 생산, 보급 확대뿐 아

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먼저 현대차는 스위스에 수출하는 10t급 수소전기 트럭을 국내 사양으로 개발해 2021년 국내에 출시하고,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전기 트럭 5대를 투입해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 보급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무선이어폰 ‘톤프리’ 체험단 200명 모집

LG전자가 무선 이어폰 신제품 ‘톤프리(사진)’ 출시에 앞서 고객 체험단을 모집한다.

LG전자는 다음달 신제품 출시에 앞서 22일부터 29일까지 ‘톤 프리 체험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가 무선 이어폰 관련 고객 체험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톤 프리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신청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내달 3일 체험단을 발표한다.

체험단은 톤 프리 신제품 수령 후 한 달 동안 직접 사용한다. LG전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작성하는 사용 후기를 포함해 모든 미션을 완료한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비스포크 냉장고’ IoT·AI로 식자재 관리

삼성전자 ‘패밀리 허브’ 적용

삼성전자비스포크 냉장고가 사물인터넷을 지원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1일 패밀리 허브를 적용한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패밀리허브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식자재 관리와 엔터테인먼트 등 기능을 냉장고에 구현한 기능이다. 2016년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에 비스포크 냉장고에도 탑재된다.

비스포크 패밀리허브는 4도어 모델로 출시된다.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패넬은 글램 네이비와 글램 답차콜 2개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패넬은 13개 색상 중에서 자유롭게 고르면 된다. 기능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자동 식품 인식 기술이 내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2100여개 식재료를 스스로 인식한다. 보관중인 식재료를 ‘푸드 리스트’에 추가해 관리해주고, 유통기한 ‘식단 플래너’는 푸드 리스트에 담긴 식재료와 미리 설정된 가족들의 선호 식단에 맞는 레시피를 주간 단위로 제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냉장고. /삼성전자

안해 주는 기능이다. 냉장고에 보관한 식재료 최대 4개를 조합해서 다양한 요리를 추천해준다. 식재료 주문도 가능하다. 스크린에 ‘이마트 물’ 위젯을 이용해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다.

가족들간 소통 공간인 ‘패밀리 보드’도 한층 개선했다.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과 웹사이트 주소를 공유할 수 있으며, 구성원 일정을 한눈에 확인해주는 캘린더 기능도 추가했다.

예술 작품 전시 효과도 있다. 스크린 세이버에 북유럽 작가 5인의 작품 10점을 탑재해 따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도어 패넬에 따라 4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책정됐다. /김재용 기자

SK C&C, 소통 앱 통해 행복일터 만든다

“‘해’로 일하는 방식 혁신”

SK(주)C&C는 구성원 소통 앱 ‘해(H app)’이 구성원들의 행복 아이디어를 실천하며 사회의 행복까지 키워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는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성원들의 근무 위치, 고객사 보안 문제로 인한 웹 기반 소통 채널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오픈한 SK(주)C&C의 모바일 기반 구성원 소통 앱이다. 단순한 의견 개진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행복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발적 실행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차별점이다. 해는 오픈 3개월 만에 구성원 주도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실현은 물론 구성

원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행복을 키우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총 3833명의 구성원 중 300명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를 중심으로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2주간의 기획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아이디어 실행에 들어간다.

구성원들이 현재까지 발의한 행복 아이디어는 총 65건에 달한다. 이 중 ▲전사 및 사업 부문별 소통 채널 통합 ▲회사 휴양소 신청 프로세스에 대한 AI 챗봇(RPA) 적용 ▲단위 조직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관련된 아이디어 등이 ‘좋아요’를 얻어 실행에 옮겨졌다. /구서윤 기자